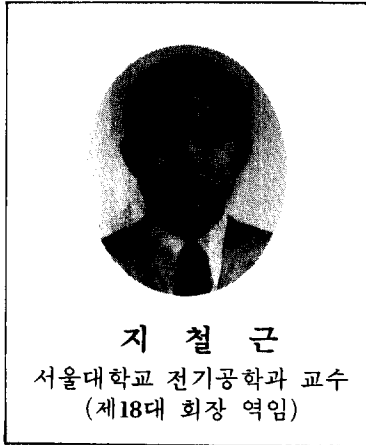


연륜만큼 내실있는 학회

1961년 이사직을 맡으면서 학회 일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학회가 40주년을 맞이한다니 새삼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1983년부터 회장직을 맡으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을 몇가지 적다보니, 마치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여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장재임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학회의 연간예산이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것과 회원관리위원회를 강화하여 회원수가 5,000명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화시키고, 또한 많은 회원들의 학회 참여폭을 확대시키



기 위하여 전력정책, 전기공업정책, 산학협동, 정보조사, 대학 및 전문대 교육 용어 출판 등의 10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일이 생각납니다. 또한 마

산에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회장, 임원 및 지부장들의 부부동반을 권유하여 관광을 시켜드린 일이 매우 인상에 남습니다.

‘전기학회’라는 큰 수레를 이끌고 가다보니 어려움도 물론 많았습니다. 특히 학회수입을 위해 특별회원 확보와 광고청탁전 등은 늘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일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일입니다.

이제 학회도 반세기를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륜만큼 내실도 다져져서 명실공히 국내최고 학회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회원여러분들의 전승을 빕니다.

歷代 學會 會長

제 1대 (1947~1949년)	尹 日 重	제 8대 (1963~1964년)	李 宗 日	제 15대 (1977~1978년)	李 承 院
제 2대 (1949~1953년)	李 宗 日	제 9대 (1964~1966년)	李 宗 日	제 16대 (1979~1980년)	梁 興 錫
제 3대 (1953~1955년)	尹 日 重	제 10대 (1967~1969년)	禹 亨 疇	제 17대 (1981~1982년)	朴 旻 鎬
제 4대 (1955~1957년)	尹 日 重	제 11대 (1969~1970년)	”	제 18대 (1983~1984년)	池 哲 根
제 5대 (1957~1959년)	尹 日 重	제 12대 (1971~1972년)	丁 性 桂	제 19대 (1985~1986년)	白 龍 鉉
제 6대 (1959~1961년)	尹 日 重	제 13대 (1973~1974년)	韓 萬 春	제 20대 (1987~현재)	高 明 三
제 7대 (1961~1963년)	尹 日 重	제 14대 (1975~1976년)	”		